

# 매경명예기자 리포트



## 김석동의 실크로드 대장정 ②



김석동 명예기자  
지평인문사회학 대표

시안(西安)에서 '신장' 우루무치에 이르는 3000km. 열흘간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황량한 벌판과 사막을 가로질러 이르는 일정이다. 신장웨이우얼은 중국 성급 자치구로 인구 약 2200만명, 면적 166만km<sup>2</sup>(남한의 약 16.7배)로 중국에서 가장 큰 성이다. 중국 북서부에 자리 잡은 이 지역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8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서역(西域)이라고 불렸고, 청나라 건륭제 때 '새로운 강역'이라 해서 신장이라고 명명했다.

(인도여행기 왕오천축국전 남긴 승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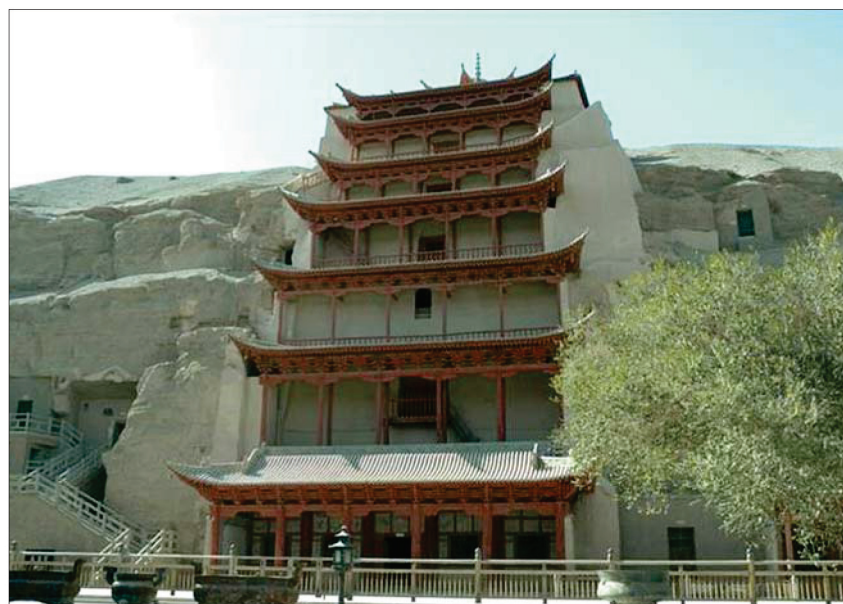
# 중앙亞 3000km 오아시스 길엔 신라 혜초의 꿈 오롯이

이곳은 실크로드 중심축이다. 시안에서 란저우, 우웨이, 장예를 지나면 만리장성 서단 1관문인 '자위관'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둔황이 나타나고, 이어 신장을 만난다. 황량한 사막과 초원의 연속이지만, 치렌산맥과 고비사막 사이에 하서회랑(河西回廊)이라는 오아시스 지대가 있다. 이곳이 실크로드의 또 다른 갈래인 '오아시스길'이다. 신장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지중해까지 실크로드는 다시 동으로 3000km에 이른다. 신장 역사는 기원전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000년께 이미 청동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고, 기마유목민 전통유물 형태인 동물 문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원전 2세기께부터 흉노가 장악한 이곳은 이후 한나라가 차지하나 다시 북방 유목민 돌궐이 패권을 차지했다.

돌궐은 흉노의 후예로 알려진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다. 552년 영결 부민카간이 나타나 부족을 통합하고, 유라시아 대초원 동서와 남북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후 동서 돌궐로 분열되면서 당나라에 멸망했다. 그러나 끈질긴 독립투쟁 끝에 '쿠틀룩'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돌궐을 재건해 후돌궐 시대를 열었다. 그 후 빌게카간 시대에 최성기를 맞이했으나, 위구르와 당 등의 협공을 받아 멸망했다.

동돌궐 지역 유목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서돌궐 지역 유목민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채 '셀주크 투르크', '룸셀주크', 후에 '오스만 투르크'를 세워 오늘날 터키에 이른다.

오늘날 터키인들은 아나톨리아 반도에 살고 있으나, 그곳 역사를 자기들 역사라 하지 않는다. 흉노가 자신을 선조이고, 투르크 이름으로 세운 최초 국가가 돌궐이며, 돌궐 멸망 후 서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그래서 터키 건국 연도는 돌궐과 같은 552년이다.



↑ 투르판 동쪽 화염산 기슭에 위치한 베제클리크 천불동에 남아있는 한반도인 추정 인물의 벽화.

←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둔황의 막고굴.

## 투르크족이 세운 돌궐과 고구려, 중원동맹 맺고 고민족사의 주인으로 위구르인, 고려로 집단이주...7~12세기 유적엔 활발한 교역흔적 뚜렷

돌궐 역사도 한민족사와 끊을 수 없다. 돌궐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 서부 국경에서 양국이 격돌하였으나, 수나라의 등장과 동서 돌궐 분열 이후 고구려는 수나라를 격파하고 돌궐과는 우호관계로 급진전했다. 강력한 당나라도 돌궐·고구려 동맹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돌궐이 분열된 틈을 타 별방시킨 후 흉노 남은 고구려까지 멸망시킨다. 그런데 후돌궐이 건국되어 다시 당과 전쟁에 돌입하는 시기에 고구려 땅에도 후고구려가 건국되었으니 바로 '발해'다. 돌궐의 켈테긴 비문은 고구려를 '코리'란 이름으로 소개한다. 코리아란 이름은 고구려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터키는 지금도 한국을 형제국가라 인식한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 만주, 몽골, 터키 언어는 동어

계이며 네 민족은 같은 혈족"이라 했다. 745년 위구르가 돌궐제국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한다. 위구르 시대에는 유목민 문화에 농경문화가 도입되면서 도시화와 정착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유목민 최초로 성곽도시를 건설했다. 위구르인들은 유목과 농경, 동서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위구르 문화를 전개해 나간다. 위구르제국은 840년 또 다른 투르크계 키르키스에 멸망을 당하고 이후 신장 지역으로 밀려 났다. 초기에는 돌궐문자를 썼지만 스스로 자체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고, 둔황·투르판 등지에서 문서와 벽화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을 남기고 있다. 신라시대인 723년께 혜초는 인도를 여행한 뒤 중앙아시아를 거쳐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

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책은 둔황 막고굴에서 우연히 발견돼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이 책은 프랑스 동양학자 폴렐리오가 가져가 오늘날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위구르인들은 몽골제국 시대에 고려에 나누 이주해 살았으며 '회회인'이라 불렸다. 이들 터전인 투르판 동쪽 화염산 기슭에는 베제클리크 천불동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이 석굴 중 하나에 한반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벽화가 남아 있다. 7~12세기 이 석굴에 한 반도인들과 서역 사이에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있는 것이다.

김석동 명예기자·최승진 기자 도움

## 폭풍같았던 칭기즈칸의 기마군단

# 몽골은 또다른 한국

울란바토르에서 칭기즈칸 시가지 330km. 포장도로지만 비포장이나 다름없다. 휴식시간을 포함해 7시간이 걸리는 장도였다. 여가서 다달숨까지는 다시 275km에 이르는 비포장 초원길을 달려야 한다. 휴식시간 포함 11시간이 걸린다. 오후 1시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밤을 꼬박 지새는 총 18시간에 걸친 강행군이다. 일반 차량으로는 어렵도 없다. 웬만한 물과 빵을 지날 수 있는 특수 RV차량이 필요하고, 사고·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어도 2대 이상이 워키토기로 교신을 해야 한다. 동북쪽 러시아 국경 쪽으로 갈수록 숲은 울창하고 강물은 맑아졌다. 가는 중에 몽골 3대 강인 툽강, 헤를렌강, 오논강을 모두 만났다.

몽골에는 특별시에 해당하는 울란바토르와 21개 주가 있다. 이중 동북쪽 헨티 주가 바로 칭기즈칸이 태어나고 세력을 모아 세계 제국을 건설한 발원지다. 헨티 주는 면적 8만km<sup>2</sup>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지만 인구는 7만명 남짓하다.

주도는 은드르항인데, 2013년 말부터 이름을 칭기즈칸 시로 바꿨다. 헨티 주에는 군(群)에 해당하는 '숨(sum)'이 18개 있는데, 이중 북동쪽 끝 러시아와 경계에 있는 '다달숨'이 칭기즈칸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다. 1162년 몽골고원 동북부 작은 몽골 씨족에서 '테무친보르지긴'이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잃고 노예생활 등 역경의 시기를 보냈지만, 초원의 질서와 생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능력으로 부족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워 마침내 몽골고원을 통일한 후 대간에 올라 칭기즈칸이라 불렸다. 칭기즈칸 기마군단은 폭풍의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대몽골제국을 건설했다. 그와 후계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3300만km<sup>2</sup> 넘는 땅을 정복해 '팍스 몽골리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몽골이 청나라와 러시아 지배를 받는 수백년간 칭기즈칸은 잊힌 존재였으며, 탄생 800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리더' '천년의 역사위인'으로 부활했다.

몽골은 역사 속에서 고려와 조우한다. 몽골인들은 코리족에서 몽골족이 나왔고, 코리족 일파인 '솔롱고스'가 남쪽으로 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믿는다. 몽골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했고, 한국인을 '솔롱고스'라고 부르는데, '솔롱고'는 무지개를 뜻한다. 현재 몽골 인구는 300만명 정도인데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은 4만명에 달한다. 한국에서 살다가 사람이 인구 중 약 10%라 한다. 몽골·만주·한반도·일본 등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민족 기원과 관련해 한국인 70~80%는 북방계이고 나머지 20~30%는 남방계이며, 기타 유럽인 등이 섞여 있다는 연구(김욱 단국대 생물학과 교수)가 있다. 한국인 주류는 바이칼호에서 온 북방계 아시아인이라는 유전자 분석한 연구(이홍규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다.

김은희 동양대 교수는 '몽골은 또 다른 한국'이고, '한국은 또 다른 몽골'이라 했다. 몽골인은 오래전에 우리가 떠나온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칭기즈칸이 태어난 마을인 은드르항 입구.